

장인화 포스코 회장, "K-세이프티 모범사례 만들자"

등록 2025.09.22 10:00:00



[서울=뉴시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그룹 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 2025.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2일 포스코포럼에서 미래 기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 안전과 관련 K-세이프티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피력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날 인천 송도 포스코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2025 포스코포럼'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대전환 시대, 무엇이 미래를 만드는가'이다.

그룹사 전 임원이 참석해 대내·외 환경과 혁신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장 회장은 "기존의 성공 방식에 갇히지 말고 기술이 초일류 기업 포스코그룹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한발 앞서 미래를 읽고 산업 변화를 주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안전에 대한 장 회장의 의지는 남달랐다.

그는 "안전진단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룹 구성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창의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제조·건설 현장에 K-세이프티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기조 강연은 앤드류 맥아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경영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그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 산업의 변천사를 짚고 AI, 로봇, 양자역학 등 최신 기술 혁신의 과도기 속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전략을 제안한다.

포스코는 이후 ▲신(新)모빌리티 ▲인공지능(AI)전환 ▲에너지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 토론, 기술 시연, 대담 등으로 포럼을 진행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취임 후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경영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철강 사업 재건, 이차전지 소재 경쟁력 쟁취 등 7대 미래혁신 과제 실행을 위해 '미래기술 기반의 초격자 비즈니스 선도'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